

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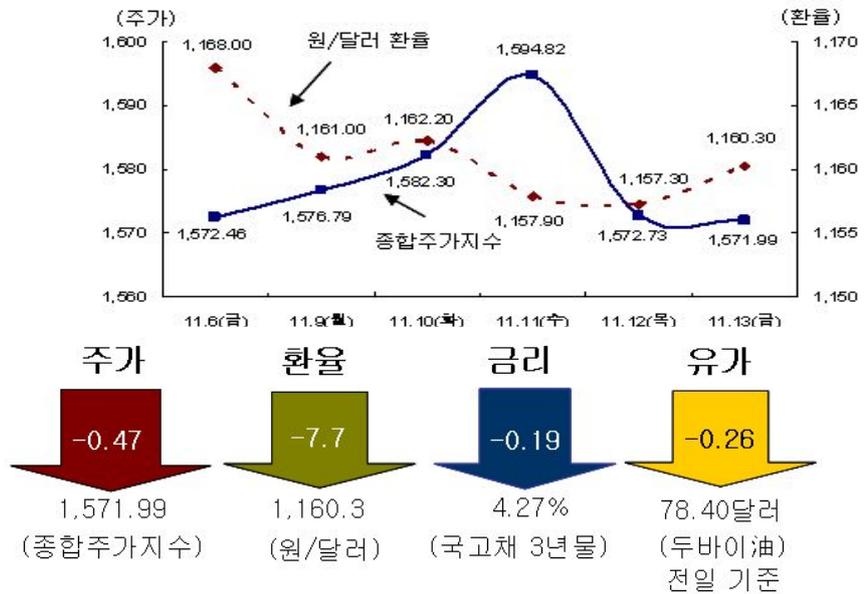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 2010 한국 경제 회복의 6대 불안 요인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1.6~11.13)



차 례

| | |
|---------------------------|----|
| 주요 경제 현안 | 1 |
| □ 2010 한국 경제 회복의 6대 불안 요인 | 1 |
| 주요 국내외 경제 지표 | 16 |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이 부 형 연구위원 외 (3669-4011, lbh@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0년 한국 경제 회복의 6대 불안 요인

■ 개요

2010년에는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국내 경제의 회복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 국내 경기의 회복 속도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경기 회복의 제약 요인은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 경제 회복의 6대 불안 요인

첫째는 미국발 금융위기 재발이다. 미국 CIT 그룹이 지난 10월 25일 '사전파산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미국의 금융 불안 문제가 재부상하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8년 10월 초 이후 부실자산 구제계획을 추진하는 등 자국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최근 서브프라임에 이어 프라임 주택대출과, 상업용 모기지, 신용카드, 자동차, 학생 대부 관련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어 제2의 금융위기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미국발 2차 금융위기가 초래된다면 글로벌 신용불안으로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수출 경기 악화 등으로 국내 경제는 재침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저금리 기조를 이용해 달러를 차입하여 경기 회복세가 빠른 아시아 및 국내 주식, 부동산 등으로 투자하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은행의 해외대출은 금융위기 이전 2008년 3월말 최고치 대비 2009년 8월 현재 91% 회복되어 달러 자금 유출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가속화는 아시아 각국 통화뿐만 아니라 원화 가치를 높이고, 국제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향후 미국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영향으로 상승했던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아시아 및 국내 경제 회복이 지연될 수 있으며,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이들 국가들의 환율을 급등시킬 수 있다. 더욱이 아시아 경제의 위축은 국내 수출 경기를 재침체시켜, 금융시장 불안과 더불어 국내 경기를 급속히 침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는 유가 급등이다. 2010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이 지속되면서 석유 수요도 동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산유국들의 석유 산업 투자 지연 등으로 석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 경기 부양책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달러화 약세로 국제석유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경우,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대내외 물가상승으로 수출 감소는 물론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경기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 유가는 리먼브라더스사 파산 이전인 2008년 7월 4일에 세계 경기 호황이 지속되고 국제투기자금이 유입되면서

서 140.7달러까지 급등하였다. 따라서 2010년에 세계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맞을 경우 유가는 100달러 선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가 10% 상승할 경우 국내 물가는 0.75%p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0.12%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국제유가가 2010년 연평균 100달러에 도달하고 평균원유도입단가가 2009년 9월까지 누적 평균 54.7달러에서 2008년 수준인 95.8달러에 도달할 경우, 전체 무역수지에는 약 353억 달러의 적자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넷째로는 원화 강세 현상의 지속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후반까지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0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수출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의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선진지수 편입과 국내 기업들의 실적 호전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달러화 가치는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과 달러화 위상 축소, 중국, 일본 등의 보유 외환의 달러화 비중 축소 등으로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은 1,000원대 이하로 급속히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환율이 급락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원화 가치 상승으로 수입 증가를 유발하고 국내 소비 여력이 해외로 이탈하면서 국내 경기의 내·외수 동반 침체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미국 발 금융위기가 재현되거나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 불안 현상이 재현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매우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섯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가계부채발 국내 금융 불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가계 부채는 2009년 6월 말 기준 697.7조 원으로 700조 원에 근접하였다. 만약 2010년에 금리가 상승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가계 부채 부담 가중에 따르는 가계 부실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실제로 추세를 반영한 가계부채는 2010년에 약 720조 원 이상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전체의 36.5%에 해당하는 262.5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2009년 9월 현재 국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5.77%로 이자 부담은 약 14.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국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까지 상승할 경우 이자 부담은 2009년 6월 말 수준에서 6.4조 원 증가한 약 2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8년 GDP의 2.1% 수준이다. 더욱이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금융부채 비중이 2008년 기준 139.9%로 미국 133.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 가계 부실이 미국보다 더욱 심각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처럼 가계 부채 부담이 증가할 경우 소비 부진은 물론 가계 부실에 의한 금융 기관 부실화로 경기 침체를 장기화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경기 회복세에 의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가계 부채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여섯째,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는 것이다. 2010년 들어 수출 및 투자 회복으로 고용 증대 효과가 기대되지만, 그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들어서도 기업들의 비상경영체제가 유지되면서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수준인 9%대의 투자 증가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수출 경기도 선진국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된다고 한다면 급속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수출 부문의 고용과급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09년 9월 신규 취업자 수가 7.1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부문 일자리 창출 규모인 32.6만 명을 제외하면 오히려 신규 취업자 수는 25만 명 이상 감소하였다. 이처럼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될 경우, 가계 임금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 실업증가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 증가, 고용 대책 등에 대한 정부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르는 재정의 경기조절 능력 약화 등으로 국내 경기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10년에도 민간의 자생적인 고용 창출력이 제로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할 경우, 고용 부진에 의한 소비 위축 규모는 연간 약 8.2조 원에 달할 전망이며, 이는 2008년 GDP의 0.8% 규모이다.

■ 대응 방안

2010년에도 한국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지속성장을 위한 발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세계 금융시장 불안 재발로 인한 경기 급락 방지를 위해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제 금융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유가 상승, 원/달러 환율 하락 등 비용 상승 요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민 물가 대책 추진, 유통 체제 및 에너지 효율성 강화,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 지속 등과 같은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

셋째, 신중한 출구전략 추진 등을 통해 가계 부실 위험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상태에서 국제적인 공조 하에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가계 부채 부담 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예방해야 해야 한다.

넷째,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생적 고용 증대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 유지, 에너지 기술 개발 관련 지원 강화, R&D 세제공제 일몰제 폐지, R&D 단계별 지원 차별화 등 R&D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내실있는 고용 대책 마련을 통해 고용없는 성장 기조를 끊어야 한다. 고용보험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생활안정 기금 조성은 물론 Working Poor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또, 장애인 등의 고용 확대 지원 강화, 고용 승계 지원 프로그램 도입, 지역 고용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을 통해 고용 대책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

1. 개요

- 2010년에는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국내 경제의 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나, 국내 경제는 금융, 실물 부문에서의 불안 요인이 상존
 - 2010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경제도 3%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됨
 - 반면, 미국 발 2차 금융위기, 달러 캐리트레이드 청산, 고유가 재현, 원화 강세 전환,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버블 붕괴 가능성, 고용없는 성장 지속 등의 위협 요인이 존재
 - 미국 발 2차 금융 위기 가능성 : 2009년 11월 1일 미국 20위권 은행인 CIT 그룹 파산 등으로 미국 발 2차 금융위기 가능성이 대두
 - 달러 캐리트레이드 청산 : 미국의 저금리 기조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빠른 아시아 및 국내 자산시장 등에 투자하는 달러 캐리트레이드가 출구전략 시행으로 급격히 축소되면서 통화 가치 급락, 자산 가격 급락 등을 유발하여 국내 경기를 재침체시킬 우려가 존재
 - 고유가 재현 : 2009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 동반 침체로 하락세를 보였던 국제유가가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르는 수요 증가 등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어 2010년에 다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우려
 - 원화 강세 전환 : 2010년에는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지속, 달러화 약세 등으로 원화가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큼
 -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 2010년에도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따르는 부작용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음
 - 고용없는 성장 지속 : 2010년 들어 국내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고용 부문도 회복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투자와 소비 회복세가 점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고용 부문도 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2010년 들어 안정적인 경기 회복과 이후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위협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노력이 필요함

2. 2010 국내 경제의 대 현안

① 미국發 2차 금융위기 가능성

○ (현황) 최근 美 CIT그룹의 파산 등으로 미국發 2차 금융위기 가능성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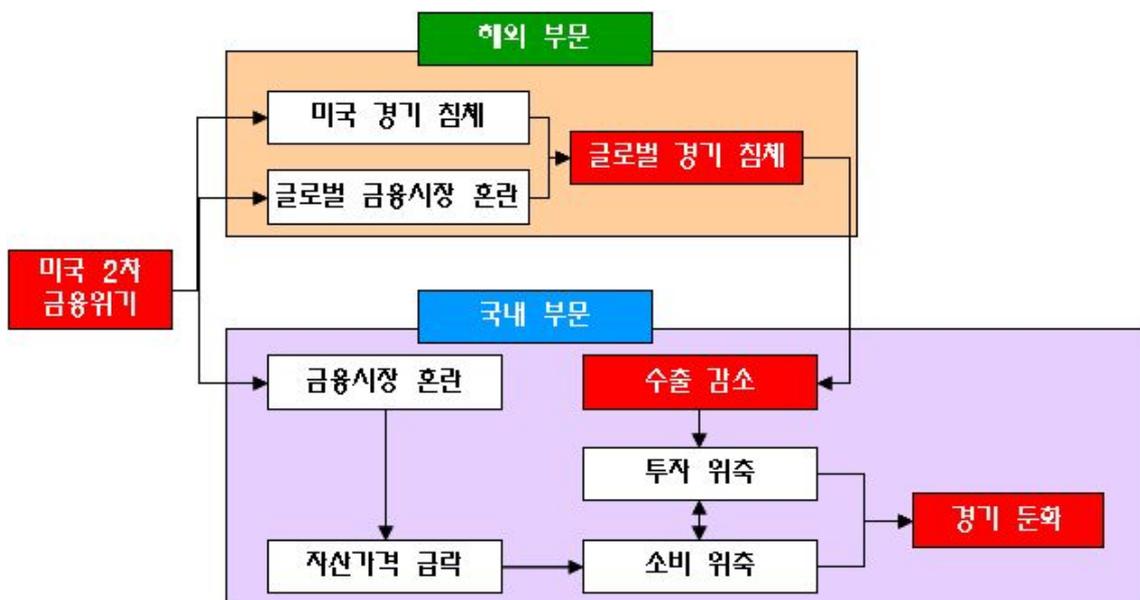
- 미국의 중소기업 대출전문 은행이자 20위권의 은행인 CIT 그룹(자산규모 710억 달러)이 2009년 11월 1일 '사전조정파산'을 신청
 - 한편 지난 10월 25일에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전문인 캡마크 파이낸셜 그룹(Capmark Financial Group, 총자산 201억 달러)이 법원에 파산 신청
 - * CIT그룹은 기업금융, 무역금융, 운송업 리스, IT벤처기업 중심의 판매자금융, 학자금대출 중심의 소비자금융의 5개 사업부문을 둔 은행지주회사로 1908년 설립
- 이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미국의 금융불안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음
 - 미 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2009년 들어 11월 3일 현재까지 총 115개 은행이 파산(10월에만 20개)하면서 17년 만에 최대를 기록
 -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VIX지수(Volatility Index)는 2009년 10월 22일 20.69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상승하며 10월 30일 현재 30.69로 급등
 - * VIX지수란 시카고옵션거래소에 상장된 S&P 500 지수옵션의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로, 일명 '공포지수(fear index)'라고도 불리면서 시장참가자들의 분위기를 표현함

○ (전망) 미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부실이 점점 확산되면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금융 불안 문제가 고조될 가능성

- 미국 정부는 2008년 10월 초 금융기관 부실자산 매입을 위해 7,000억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 구제계획(TARP; Troubled Assets Relief Program) 마련
 - 미 재무부는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민관합동투자펀드(PPIF) 조성
 - 추가 금융기관 부실처리와 관련하여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민간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인수
- 현재 서브프라임에 이어 프라임 주택대출과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차, 그리고 학생 대부 관련 연체율 등도 급증

- 미국 상업은행의 연체율은 2008년 3/4분기말 3.74%, 4/4분기 4.62%, 2009년 1/4분기 5.60%, 2/4분기 6.39% 등 급상승
- (영향) 미국發 금융위기가 발발할 경우 예상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이 국내 경제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글로벌 신용불안이 재점화되고 중소형 기업 및 금융기관의 어려움이 고조되면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국내 수출을 둔화시킬 것임
 -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자금난 및 동종업계 신용경색을 증가시키고, 중기적으로 실업률 상승, 투자심리 악화 등 미국경제 및 글로벌 경제 전반의 재침체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세계 경기가 동반 침체가 지속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뿐 아니라 주요 수출 대상국들에 대한 수출 증가세도 둔화될 것임
 - 한편 글로벌 금융 불안에 따른 주식 및 부동산 시장 등 자산시장의 혼란은 국내 자산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면서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판단
 - 부동산 및 주식가격 하락 등으로 개인의 순자산가치가 축소될 경우 負의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나타나면서 소비가 더욱 위축

< 미국發 2차 금융위기의 파급영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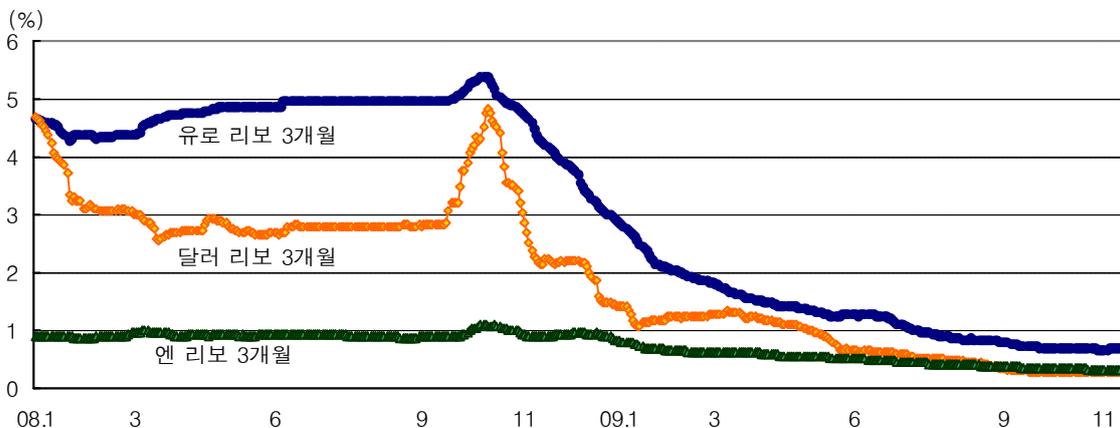


② 달러 캐리 트레이드 청산

○ (현황) 미국의 저금리 기조를 이용해 달러를 차입하여 경기 회복세가 빠른 아시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주식, 부동산 등으로 투자하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활성화되고 있음

- 달러 리보 금리가 8월 하순 이후, 엔화 리보 금리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
 - 달러 리보 3개월 금리는 11월 11일 현재 0.2725%, 유로화는 0.6725%, 엔화는 0.3162%를 기록
 -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심화되면서 6개국 주요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표시하는 달러 인덱스(Dollar Index)가 2009년 3월 5일 89.1로 최고치로 상승하였으나, 11월 6일 현재 75.8까지 하락
- 중국, 홍콩, 한국 등 아시아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 11월 6일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3,164p로 리먼사태 이전보다 1,000p 가깝게 상승하였고 홍콩의 경우, 같은 기간 19,352p에서 21,829p까지 상승
 - 한국의 코스피도 11월 6일 현재 1,576p로 금융위기 이전보다 약 100p 상승
- 채권발행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 은행의 해외대출은 최근 증가세가 지속
 -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 은행의 해외 대출 등 대외채권 잔액은 2009년 8월 말 현재 2조 8,123억 달러로 최고치인 2008년 3월 말 3조 842억 달러 대비 91%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 달러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달러, 유로, 엔 리보금리 추이 >



자료 :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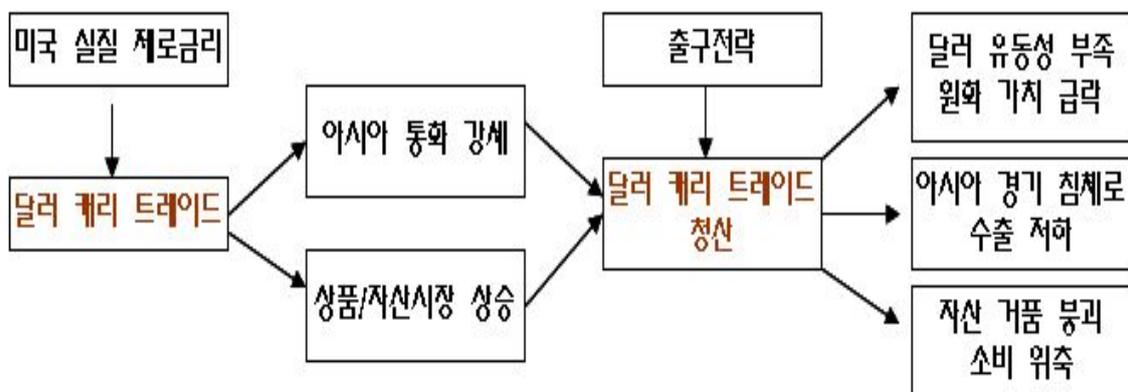
○ (전망)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가속화는 원화 가치를 더욱 높일 것이고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가속화시킬 것임

- 달러 캐리 트레이드는 글로벌 달러 가치 약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화 가치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
 - 원/달러 환율은 달러 리보 금리가 엔 리보 금리보다 낮아진 8월 24일 1,240원에서 11월 11일 현재 1,157.9원으로 하락하여 원화 가치가 6.6% 상승
- 또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판매국들은 달러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가격을 높이려고 할 것임
 - 두바이유 가격은, 8월 24일 72.7달러에서 11월 12일 78.7달러로 8.2% 상승

○ (영향)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경우, 아시아 및 국내 경제 회복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고조될 수 있음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를 인상할 때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
 -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은 상승했던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기업 및 가계의 소비 위축을 가져와 아시아 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
- 국내의 경우, 외환유동성 부족 사태로 이어져 국내 원화 환율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아시아 경제 위축은 수출 경기 회복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며 국내 자산시장의 위축은 내수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상존

< 달러 캐리 트레이드 청산 영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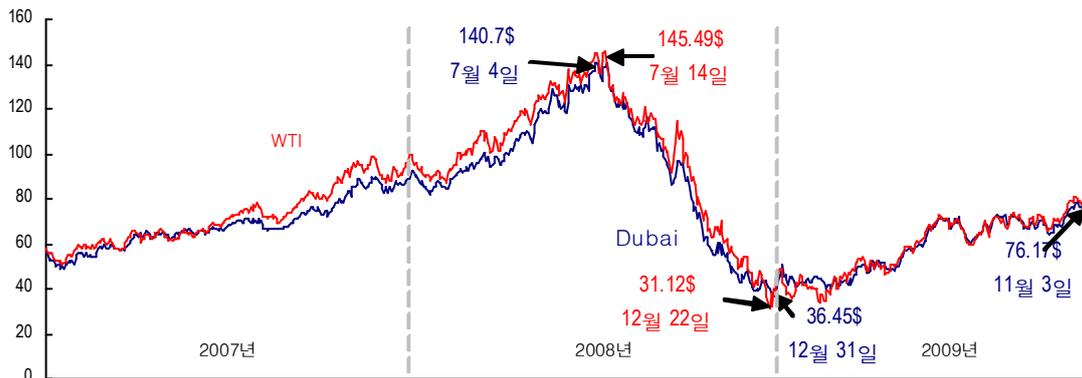


③ 고유가 재현

- (현황) 2008년 연말까지 하락세를 보였던 국제 유가가 2009년 하반기 들어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수요가 증가되고, 투기자금이 유입되면서 상승세
 - 석유 수요 증가 : Oil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지난 9월 세계 석유 소비량은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 수요 확대로 전년동월대비 약 0.6% 증가
 - 투기자본 유입 가속 : NYMEX(뉴욕상품거래소) WTI 선물시장에서는 지난 5월 1주차에 순매도(옵션제외)로 전환되었으나, 이후 순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지난 10월 3주차에는 순매수 건수가 7만 4,383건에 달함
 - 국제 유가 상승 : 두바이유 기준 유가는 지난 2008년 말 약 36.5달러에서 2009년 11월 3일에는 약 76.2달러까지 상승

< 국제 유가 추이 >

(단위 :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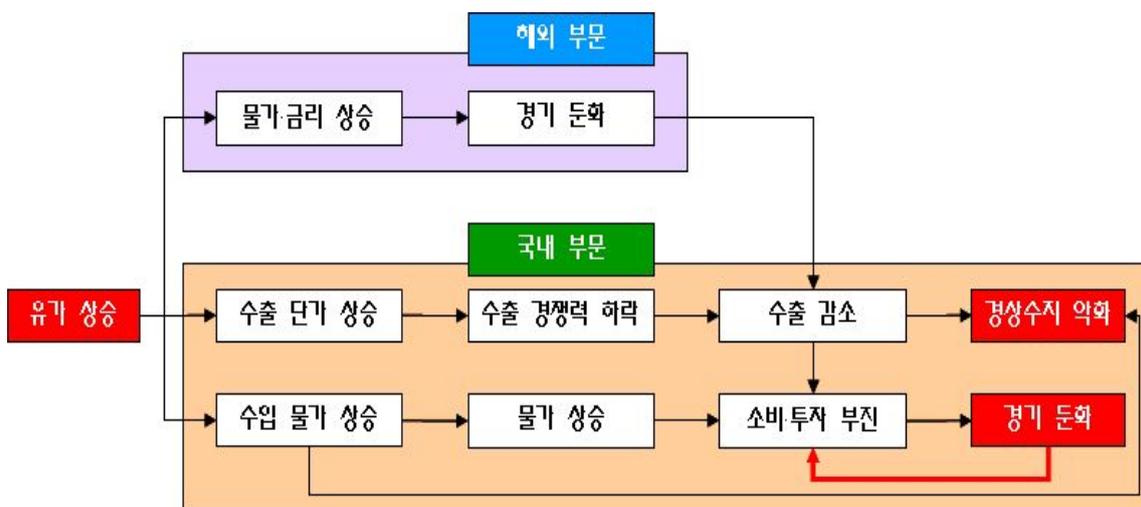


자료 : Petronet.

- (전망) 2010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르는 석유 수요 동반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석유 수급 불일치, 달러화 약세 등에 따르는 투기자금 유입 등으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2010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석유 수요도 증가할 전망
 - 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09년 1.1% 감소에서 2010년에는 3.1% 증가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유로 지역 등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2010년 1.3%, 중국, 중동 등 주요 개도국들은 5.1%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IEA(International Energy Organization,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0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규모와 공급 증가 규모가 150만 b/d로 동일한 수준에 머물 전망이어서 석유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

- 더욱이, 2009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APEC 국가들의 석유산업 투자 지연, APEC 국가들의 감산 정책 유지 가능성 등도 석유 수급 불균형을 야기
- 또, 이란 등 산유국 정세 불안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2010년에도 공급 측면에서의 리스크 요인이 상존
-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 경기부양책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달러화 약세로 국제석유시장으로 유입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 2010년에도 여전히 미국 경기 불안감이 존재하고, 기축통화논쟁이 가속화되면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전망
- (영향) 국제 유가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르는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여 소비와 수출의 내·외수 동반 부진 현상을 야기시켜 경기 둔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원유 도입 단가 상승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유가 10% 상승 시 물가는 당해 0.75%p 상승하고 국내 경제성장률은 당해 0.12%p, 다음해 0.27%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¹⁾
- 더욱이, 국제유가가 2010년 연평균 100달러에 도달하고 평균원유도입단가가 2009년 9월까지 누적 평균 54.7달러에서 2008년 수준인 95.8달러에 도달할 경우, 전체 무역수지는 약 353억 달러의 적자 요인이 발생하게 됨
- 이 경우 경상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쳐 국내 금융시장이 혼란해질 수 있음

<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



1) 유가 상승에 의한 파급 영향은 현대경제연구원, 「유가 100불 시대의 대응전략」, 2007년.

④ 원화 강제 전환

○ (현황) 2009년 상반기부터 급속하게 가치가 상승한 원화가 2010년에는 강세로 전환될 것임

-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09년 3월 2일 1,570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1월 3일 현재 1,182원을 기록하였음
- 이는 올 최고점 대비 24.7% 절상된 수치임

< 원화 환율 추이 >

| 구 분 | 2008 | 2009 | | | | | | | | |
|------------|------------------|------------------|------------------|------------------|------------------|------------------|------------------|------------------|------------------|-------|
|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3 |
| 원/달러 기말 | 1,259 (1,103) | 1,383 (1,453) | 1,282 (1,336) | 1,255 (1,255) | 1,273 (1,262) | 1,228 (1,261) | 1,248 (1,239) | 1,178 (1,215) | 1,182 (1,174) | 1,182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 : () 안은 기간 평균임.

○ (전망)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및 달러 가치 약세 지속 등으로 원/달러 기조는 2010년에 강세로 전환될 것임

- 경상수지 흑자가 2010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
 - 2010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으로 수출입 모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무역수지 흑자는 지속될 것이나, 그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
- 외국인들의 투자자금 유입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 IIF(국제금융연합회)에 따르면 2010년 아시아로의 민간자금 유입 규모는 2009년 1,910억 달러에서 2010년 2,728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국내 주식시장이 9월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선진지수에 편입됨에 따라 추가적인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액이 최소 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한국거래소 추정
- 미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에 따라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2009년 9월 미국 실업률은 9.8%로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경기부양책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도 2010년 상반기부터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의 원화 환율전망을 살펴보면, 2009년 4/4분기 말 1,146원, 2010년 1/4분기 말 1,105원, 2/4분기 말 1,066원, 3/4분기 말 1,116원 예상

< 주요 해외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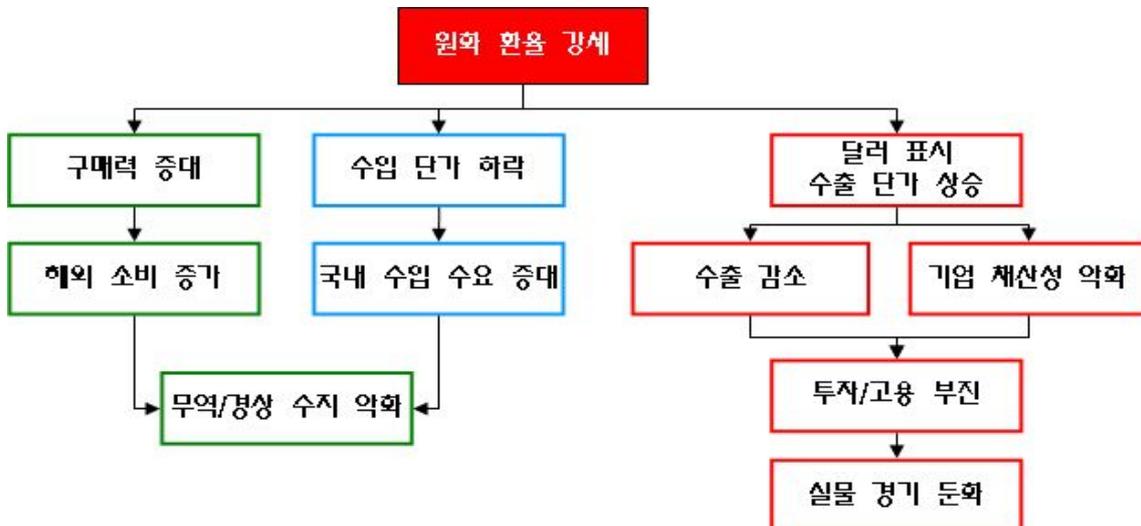
| | 2008 평균 | 2009 11.3 | 2009 4/4분기말 | 2010 1/4분기말 | 2010 2/4분기말 | 2010 3/4분기말 |
|-----|------------|--------------|----------------|----------------|----------------|----------------|
| 평 균 | 1,103 | 1,182 | 1,146 | 1,105 | 1,066 | 1,116 |

자료 : 블룸버그

주 : 7개 국제투자은행의 10월 2일~10월 19일 전망치를 이용.

- (영향) 원화 환율의 급속한 하락은 수출 경쟁력 약화, 기업 채산성 악화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수입 증가를 유발하고 국내 소비 여력이 해외로 이탈하면서 국내 경기의 내·외수 동반 침체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큼
 - 수출 경쟁력 약화 : 특히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 약세에 따른 평가절하로 중국과 경합하는 항목의 수출 경쟁력 하락은 두드러질 것임
 - 기업 채산성 악화 :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출액 축소로 수출기업들의 원화 환산 매출 회복이 지연되면서 채산성이 악화
 - 수입 유발 :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입 가격 하락은 국내 수입 수요 증대를 유발할 것임
 - 경상수지 악화 : 한편, 원화 강세로 국내 소비 여력의 해외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우려도 큼

< 원화 강세의 영향 >



⑤ 가계부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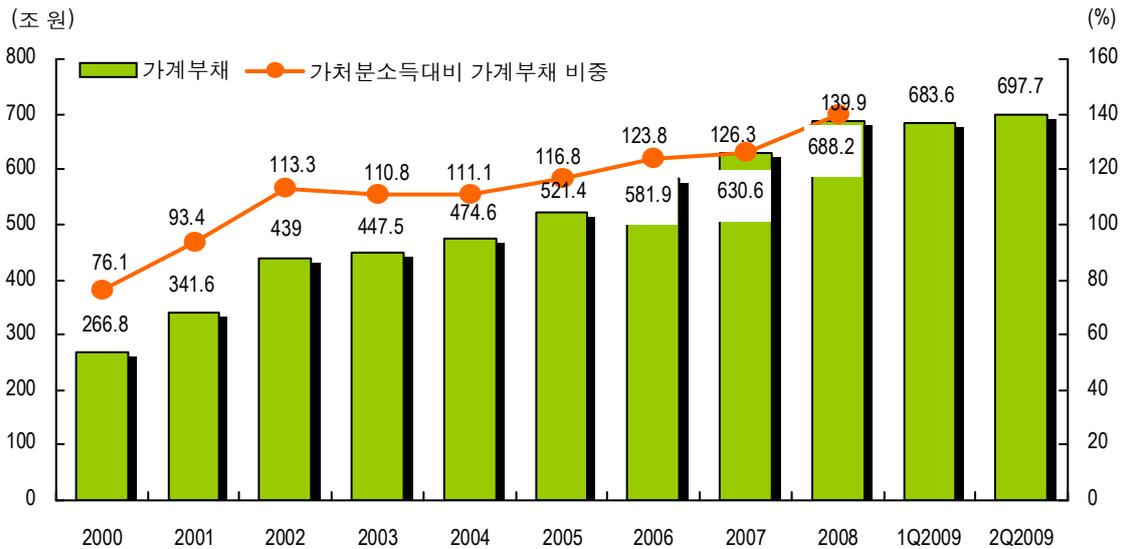
○ (현황)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6월말 700조 원에 근접하고 있음

-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9년 6월말 698조 원에 달함. '09년 6월말까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4.8조원으로 전년 동기(7.8조원) 대비 급증하여, 전체 가계부채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

·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급등: 2008년 말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9.9%로 2007년 말 126.3%에 비해 크게 증가

· 여전히 높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09년 2/4분기 36.5%까지 급증했으며, 대출 규모는 254조 원까지 증가

< 국내 가계부채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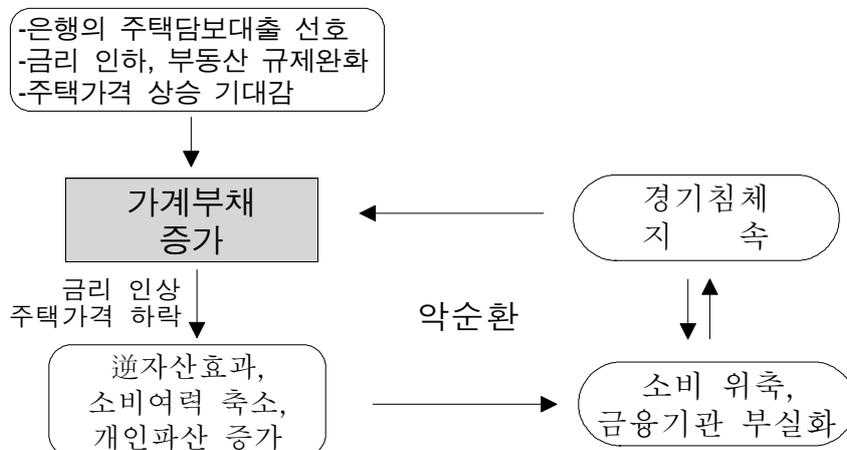
○ (전망) 2010년 상반기의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여 720조 원을 넘어설 전망

- 2010년 가계부채는 금리 인상과 정부의 감독 강화 등으로 증가율은 하락하겠지만 증가세는 그대로 유지되어, 가계부채 규모가 720조 원을 넘어설 전망

- 한편 2010년에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이자율도 현재의 약 6% 수준에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영향) 2009년에도 지속된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부채의 급증에 따라, 2010 년도에는 자산버블의 형성과 개인파산의 증가, 경기침체의 지속이 우려됨
- 소비 위축 :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태에서의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은 가 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위축을 초래할 것임
 - 2009년 현재 국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5.77%로 이자부담은 약 14.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향후 국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까지 상승할 경우 이자 부담 은 2009년 6월 말 수준에서 6.4조 원 증가한 2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 면 이는 2008년 GDP의 2.1% 수준임
 - 더욱이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금융부채 비중이 2008년 기준으로 139.3% 로 미국 133.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 가계 부실이 미국보다 더욱 심각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함
 - 특히 경기 회복세에 따르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 등으로 부 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짐
- 금융기관 부실화 : 금리인상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개인파산이 증가하 게 되면, 제2 금융권을 시작으로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시작될 수 있음
 - 1980년대 중반 스칸디나비아 3국의 경우, 가계부채 급증과 버블붕괴로 대형 상업은행의 부실화와 금융위기를 초래한 바 있음

<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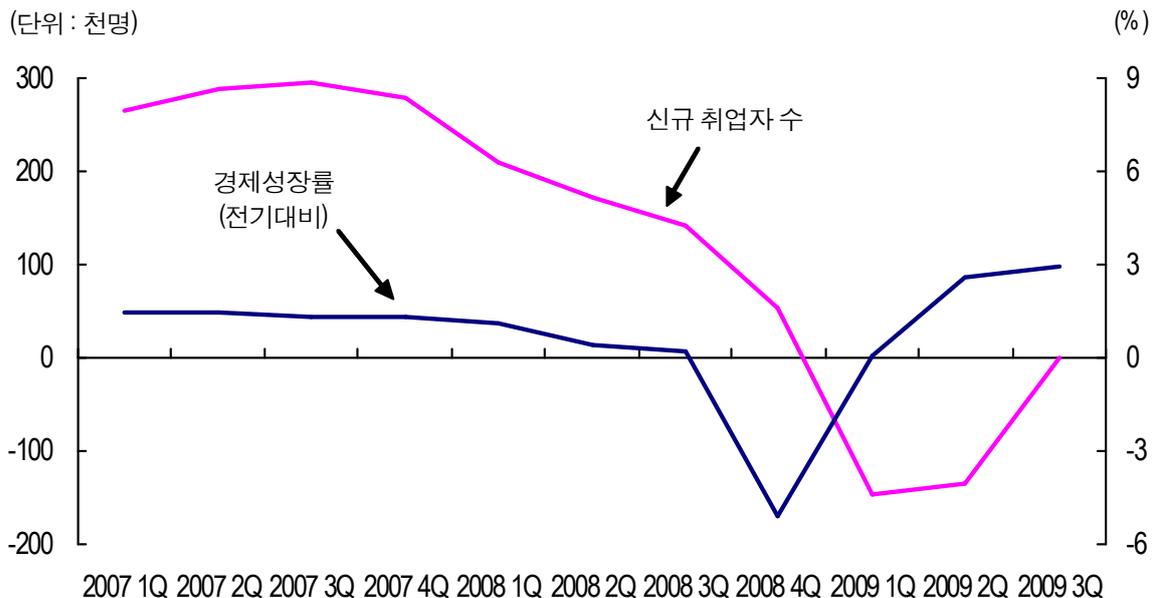


⑥ 고용없는 경기 회복(Jobless recovery)

○ (현황) 주요국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 국내 경제는 지난 3/4분기 전기대비 2.9%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3분기 연속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을 지속
- 반면, 2009년 9월 신규 취업자 수가 7만 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외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에 머물고 있음
 - 2009년 9월의 경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부문의 증가분 32만 6,000명을 제외하면 25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 성장률과 신규 취업자 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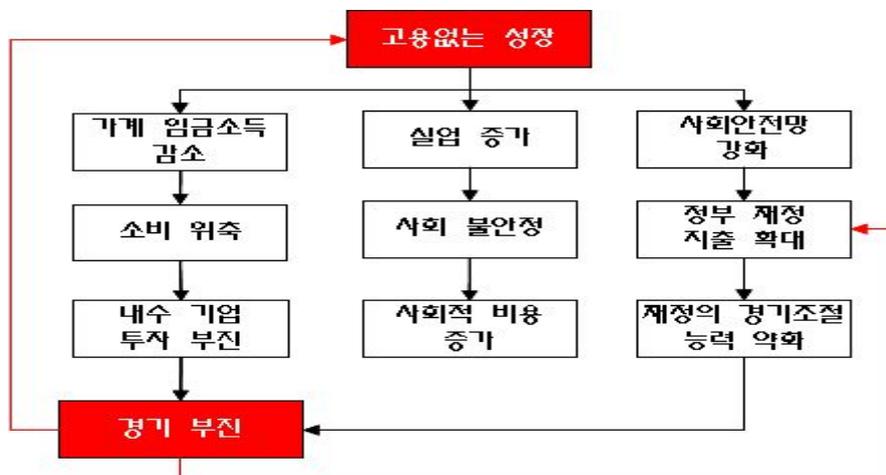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 (전망) 2010년에도 투자 회복세가 그다지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수출 경기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등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큼

- 2010년 들어 수출 경기의 회복, 기저효과, 내수 회복세 지속 등으로 투자 회복이 기대되지만 그 속도는 상당히 더딜 것으로 예상

- 특히 설비투자의 경우, 기업들의 감량경영 지속, 신성장동력 발굴 미흡,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 추진 부진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준(2007년 9.3%)까지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
- 한편, 선진국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여 수출 경기의 급속한 회복이 어려울 전망으로, 수출 부문에서의 고용 회복 기대감도 낮음
- 내수 부문에서도 소비 회복세가 미약하여 서비스 산업 등 내수 산업 부문의 고용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며, 부동산 시장 규제 지속 등으로 건설 부문 고용 개선도 미흡할 전망
- (영향) 고용없는 성장은 직접적으로는 소비 부진을 통한 경기 침체의 원인을 제공하며, 간접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재정의 경기조절 능력을 약화시켜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고용없는 성장은 가계 임금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내수기업 투자 부진을 유발하여 전체 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음
-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룰 경우 신규 고용 창출력은 약 30만 명에 이르는데, 2010년에도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될 경우 소비 위축 효과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우려가 큼
- 2010년에도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어 공공부문 고용증가를 제외한 민간의 자생적인 고용 창출력이 제로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할 경우, 고용 부진에 의한 가계 소비 위축 규모는 연간 8조 2,466억 원에 달할 전망이며, 이는 2008년 명목 GDP의 0.8% 규모에 이룸

< 고용없는 성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3. 대응 방안

- 2010년에도 세계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이로 인한 급격한 경기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등과의 금융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
 - 세계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재현되지 않도록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 높은 외환 보유 규모가 큰 국가들과의 금융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함
 - 한편,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완전히 불식될 때까지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내 금융시장 안정화를 꾀해야 할 것임
 - 금융모니터링 강화로 공기업과 국내외 은행들의 과도한 해외 채권 발행이나 외화 차입을 억제
 - 미국 등 주요국들과의 통화 스왑 규모 확대 및 장기화 등을 통한 안전핀 강화가 필요함
- 유가 상승, 원/달러 환율 하락 등 비용 상승 요인에 대한 대응책 마련
 - 수입 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고리의 개선
 - 서민층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한시적 관세 인하 품목 확대, 유류세 환급 등과 같은 직접적인 서민 물가 대책 강구
 - 유통 체계 및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 외환시장 안정화를 통해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시킴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르는 물가 파급 효과를 최소화
- 신중한 출구전략 추진,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을 통해 가계 부채 부담의 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갑작스런 붕괴를 방지해야 할 것임
 - 국내·외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상태에서 국제적인 공조 하에 금리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가계 부채 부담 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예방해야 함

○ 또,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생적 고용 증대 기반을 강화하고 보다 내실있는 고용 대책 마련을 통해 고용없는 성장 기조를 끊어야 함

- 민간 투자 활성화

- 투자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투자 애로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유지하는 등 기존의 투자 활성화 정책 기조의 일관된 추진이 필요함
-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지원제도를 정비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투자 프로젝트별 맞춤형 규제 개선 방안' 추진

- 취약 계층 고용 및 생활 지원 강화

- 청년층 등에 대한 고용 및 생활 지원 강화 : 고용보험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생활안정 기금 조성
- **Working Poor** 대책 마련 : 단시간,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조성금 마련 등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꾀하고, 이들에 대한 정규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강화 등의 보완적인 정책 수단의 강화가 필요함. 또, 위기 극복 과정에서 Homeless로 전락하는 등 생활기반을 상실한 자들을 위한 '긴급피난시설' 등을 마련하여, 생활 및 재기를 지원
- 장애인 등의 고용 확대를 위한 특별 **Program** 마련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가운데 일정 비율을 고용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당하여 직무 경험을 향상시켜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 특별 고용촉진 프로그램'을 마련
- 고용 승계 지원 프로그램 도입 : M&A 또는 구조조정 기업 인수 시 대상 기업의 고용을 승계하여, 고용 불안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용 승계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지역 고용 활성화 대책마련 : 지역산업 활성화 인턴십, 지역 녹색성장 인턴제도 등을 마련하여 지역산업의 전략 산업화 과정에 관한 직무훈련 강화를 통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용 체재 구축. 특히, 지역 NGO나 NPO 등의 '사회적기업의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고용 촉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함

주요 국내의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 구분 | 2007 년 | 2008 년 | 2008년 | | | | 2009년 | | | 2009 (E) |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
| 미국 | 2.1 | 0.4 | -0.7 | 1.5 | -2.7 | -5.4 | -6.4 | -0.7 | 3.5 | -2.7 |
| EU | 2.7 | 0.7 | 0.7 | -0.3 | -0.3 | -1.8 | -2.5 | -0.1 | - | -4.2 |
| 일본 | 2.3 | -0.7 | 4.0 | -4.3 | -5.1 | -12.8 | -12.4 | 2.3 | - | -5.4 |
| 중국 | 13.0 | 9.0 | 10.6 | 10.1 | 9.0 | 6.8 | 6.1 | 7.9 | 8.9 | 8.5 |
| 한국 | 5.1 | 2.2 | 5.5 | 4.3 | 3.1 | -3.4 | -4.2 | -2.2 | 0.6 | -1.0 |

주 1) : 2008년, 2009년 2/4분기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09년 전망치(E)는 IMF 2009년 10월 기준임.

2) :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 구분 | 2008년 말 | 2009년 | | | | | | |
|----|------------------|---------|---------|---------|-----------|------------|---------|-----------|
| | | 3월말 | 6월말 | 9월말 | 11월 6일 | 11월 13일 | 전주비 | |
| 해외 |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 2.21 | 2.66 | 3.54 | 3.30 | 3.52 | 3.44 | -0.08%p |
| | 엔/달러 | 90.80 | 98.98 | 96.33 | 89.91 | 89.70 | 90.39 | 0.69¢ |
| | 달러/유로 | 1.3992 | 1.3244 | 1.4039 | 1.4646 | 1.4879 | 1.4848 | -0.0031\$ |
| | 다우존스지수 | 8,776 | 7,609 | 8,447 | 9,712 | 10,006 | 10,197 | 191p |
| | 닛케이지수 | 8,860 | 8,110 | 9,958 | 10,133 | 9,717 | 9,804 | 87p |
| 국내 | 국고채 3년물 금리 | 3.41 | 3.94 | 4.16 | 4.39 | 4.49 | 4.31 | -0.18%p |
| | 원/달러 | 1,259.5 | 1,383.5 | 1,273.9 | 1,178.1 | 1,167.5 | 1,160.3 | -7.2원 |
| | 코스피지수 | 1,124.5 | 1,206.3 | 1,390.1 | 1,673.1 | 1,572.5 | 1,572.0 | -0.5p |

주 : 11월 13일 해외 지표는 전일(11월 12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 구분 | 2008년 말 | 2009년 | | | | | | |
|---------|------------|--------|--------|--------|-----------|------------|--------|---------|
| | | 3월말 | 6월말 | 9월말 | 11월 6일 | 11월 13일 | 전주비 | |
| 국제 유가 | WTI | 44.61 | 49.65 | 69.08 | 70.28 | 79.63 | 76.67 | -2.96\$ |
| | Dubai | 36.45 | 46.80 | 71.85 | 65.33 | 78.45 | 78.40 | -0.05\$ |
| CRB선물지수 | 229.54 | 220.40 | 249.96 | 259.39 | 274.30 | 269.20 | -5.10p | |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